하나님과 선민의 꽤 불행한 결합

(출34:1~35)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2.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3.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4.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5.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6.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8.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9.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선민의 꽤 불행한 결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과 선민의 꽤 불행한 결합'

하나님과 선민의 결합이 왜 불행한지 우선 분위기부터 한 번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문에 파탄의 지경에 이를 수 있었던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가 모세의 간절한 중보를 통해서 다시금 맺어지게 됩니다. 먼저 받았던 십계명 돌판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모습을 본 모세가 '너희들과 같은 자들과 내가 무슨 계약관계를 맺고, 부부관계처럼 아버지와 자식관계처럼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진노의 마음을 표현해서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만들라고 하셔서 재차 결합의 언약이 체결되는 상황인데 도저히 기쁨과 행복의 분위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은혜다,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선민

이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면서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라고 하지만 실제로 선민답게 살지도 못하고 선민이 누려야할 은총도 다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처럼 아주 분명하게 우리 앞에 제시하는 하나님의 불행에 대해서 눈감아버리는데 우리들 선민과 결합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하시지 않은 이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3절에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언약관계를 체결하기 위해서 돌판을 들고 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시내 산에 인적을 금지하십니다. 심지어는 가축들이 와서 풀 뜯는 것도 용납이 안 되고 다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분위기가 무엇입니까? 모든 정상적인 결합에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화합하고 결합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11-12절에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 지어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를 말씀하시는데, 가나안에 있는 여섯 족속과 절대로 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의 종교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그들의 문화를 깡그리 짓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화를 짓밟으려면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의 결합의 순간에 다른 종족을 다 죽여야 한다는 살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계약관계가 온전히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고 하십니다. 일반 결혼식의 서약에서는 '힘들거나 기쁘거나 언제나 함께 하겠다'라는 아름다운 서약을 할뿐 '만약에 한눈팔면 박살을 내겠다.'라고 서약을 하는 결혼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합에서의 서약이 이렇게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결합하심에 있어서 불행해지시는 그 이유를 알고 제거해서 우리와 결합하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 결합은 온전히 진행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 왕국 유다와 북 왕국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앗수르에 망하면서 이들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삶이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불행한 끝맺음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불행에 눈뜨지 못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왜 불행해 하시는가에 주위를 기울이지 않았고 내가 무엇을 받을까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신랑 마음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우두커니 창가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결혼이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불행해하시는 이유를 모르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식과 같은 결합의 순간에도 이렇게 살벌한 서약을 말씀하시고, 가까이 오면 죽일 자들과 왜 결합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같은 방에 들어가서 한 방을 쓰면 죽일 수밖에 없는 자와 결합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우울한 결합입니

까?

하나님의 불행하심의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선민이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뻣뻣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목이 뻣뻣하지 않은 선민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33장 12절과 17절에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또 17절에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불행해하시는 마음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마음이 기쁘지 않고 불행하신 이유를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목이 뻣뻣하기 때문인데 용서하시고 마음을 푸시라고'하면서 간구를 드립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는 말의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기가 막히는 예가 있습니다.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무나도 예뻐하시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인데, 에스더에 보면 모르드개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유대민족을 하만의 궤계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갑니다. 5:1-3절에 "제 삼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 규 끝을 만진지라 /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진멸시켜야 할 추악한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에스더를 대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심정으로 모세의 간구를 듣고 이스라엘을 용서해주시는데 이것이 은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총을 입었다는 말을 모세가 뭘 좀 받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을 때에 금규를 내밀지 않았으면 호위 무사들이 당장에 목을 베였을 것인데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나 예쁘고 서있는 모습을 보니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예쁘게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쁘게 보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결합을 위한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새삼스럽게 5,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라고 두 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이전에도 조상 때부터 써오던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모를 자가 없는데 새삼스럽게 당신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는 말씀에서 '이름으로도 안다'라는 것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마음으로 좋아해서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마음을 보낸다는 것이고 그 이름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하고 그 이름만 붙잡고 다른 존재에 마음이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여호와'라는 이름 옆에 인간들이 좋아할만한 이름과 존재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고 우리에게는 아들딸이 있습니다. 애인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날 알아줘서 내가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인기스타가 되고 박사가 되어서 많은 제자들이 나를 존경하고 좋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차원적인 것이지만 외제 차, 명품 백 이런 것들까지, 저도 독일에 유학 갔던 첫날에 도와주시러 나온 분이 벤츠 새 차를 몰고 나오셨는데, 그 때가 1990년이었는데 눈이 휘둥그레지고 벤츠를 타니 독일에 온 느낌이 들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내버려두고 왜 마음이 하늘로 올라왔느냐는 것입니다. 좋아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다 제쳐두고 하늘로 올라오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볼 때의 느낌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주체가 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모세이고 선민입니다. 그래서 선민에게 '여호와라, 여호와라'라고 이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다. 선민에게 이름을 주신 이유는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하늘에 계시므로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뒤로 하고 마음을 하늘로 보내서 기뻐하고 하늘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셔서 선민이라는 금을 긋고 안에 몰아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들의 마음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들고서도 다른 데에 가있는 것을 아시면서 그들과 결합을 하셔야 되므로 불행하십니다. 마음에 없는 여자와 정략결혼을 해야 하는 신랑의 심정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십니다.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정략결혼이고 이득을 따진 결혼이지만, 전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마음은 다 다른 데 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불행하심, 하나님은 지금도 불행해하십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을 때처럼 그렇게 나를 예뻐하실까요? 아니면 나를 보고 불행해하실까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물으십니다. '천사들아 태 승철의 마음이 하늘에 올라와 있느냐? / 안 올라왔는데요. / 그럼 어디에 가 있느냐? / 목회에 성공하겠다고 목회 세미나에 가 있어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물으십니다. '내 아들 예수야! 태 승철이의 마음은 언제쯤 이 하늘에 올라올까?'라고 기다리십니다. '김 장로는 마음이 올라왔나? / 안 올라왔는데요. / 마음이 어디 가있나? / 사업이 잘 된다고 마음이 완전히 취했습니다.' 그러면 '홍 장로는? / 홍 장로님은 싱글로 수치를 내리겠다고 마음이 골프 연습에 다 가있습니다. / 그래, 내가 골프보다 못하구나. 내가 사업보다 못하구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불행해하시는 것입니다. 선민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계시는 하늘로 갈 생각을 전혀 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의 예식이 살벌해진 것입니다. '시내 산에 올라오면 다 죽인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마음에서 좋아하는 것은 여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방민족을 만나면 다 죽이라'고 하신 것은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민으로 금을 그어서 구분을 했지만 선민이 아닌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속에 돈이 들어가 있고,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민 아닌 사람들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실제로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북 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 왕국 유다도 그렇고 그대로 따라가므로 다 죽이라고 하신 것인데 이렇게 우울하고 살벌한 결혼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문을 열고 '하나님! 하나님! / 웬 호들갑이냐? / 김 장로가 마음을 보냈어요. / 그래? 김 장로 형편이 어떤데? / 사업이 잘 되다가 어려워졌거든요.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사업이 잘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고 하면서 마음을 보냈어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 김 권사님이 마음을 보냈습니다. / 형편이 어떠냐? / 자식이 말썽을 부리는데도 하나님이 먼저라고 마음을 하늘로 보냈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자식, 그 사업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광채가 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오니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그 앞부분에는 "첫 태생, 아빕 월의 유월절, 무교절, 안식일" 등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얼굴은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에 광채가 나게 됩니다. 마음에서 광채가 난다는 것은 결혼을 했는데 아주 온전한 결합을 했습니다. 온전한 결합이라는 것은 그 여자의 이름을 마음에 갖고서 이름이 가리키는 그 존재를 서로 갖게 되는 완전한 결합이니 얼마나 기쁩니까? 남편이 그 기쁨을 가지고 회사에 나갈 때에 어떤 여자를 만나도 오직 신부 얻은 그 기쁨을 갖고 활짝 웃으면서 마음에는 신부로 인한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 기쁨에 겨워서 다른 여직원들을 상대하면 결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고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갖게 됩니다. 돈을 갖듯이, 집을 갖듯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져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의 기업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기뻐진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것과도 결합을 시도하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외아들과도 결합하지 않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들이 갖고 싶어 할 만큼 예쁜 사라도 아브라함은 결합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다른 것은 오늘 가나안의 여섯 족속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상종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행1: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만나게 되는 모든 이방민족들을 멸절시키라고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이방민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땅 끝까지’라는 범주 안에는 그 당시의 가나안 족속 못지 않게 우상에 찌든 가지가지 문화와 민족과 나라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다른 이유는 지금 구약에서의 결합은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찾아다니며 전전긍긍하는 상태에서의 결합이므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다른 것을 담고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이 세상 것들을 좋다고 담고 있기에, 다른 민족이 그것들을 얻는 방법대로 우상숭배를 따라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 죽여 없애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뒤에는 예수님의 줄타기인 동선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하십니다. 모세 자신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서 에스더와 같이 은총을 입었고, 중보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받게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처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특성은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당신께 마음을 드리고 매달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이라고 연합하기만 하면 별로 힘 안들이고 마음이 주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동선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급한 사업 문제가 있는데도 사업 문제에 대해서 주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고 죽어버리면 마음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얘가 어떤 상태에서 마음이 올라 왔느냐? / 사업이 안 돼서 죽네 사네 하는 상황인데 마음이 하늘로 올라왔습니다. / 그래? 그렇게 사업이 급한 상황인데 마음을 나에게로 보냈단 말이지? 이거 에스더 아니냐?’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즐거워지셔야 내 삶도 즐거워집니다. 남편이 나와 결혼한 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나 혼자 좋아한다고 해서 그 행복이 유지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행복해 하십니까?

이 땅에 좋은 것들이 많고 신경 쓸 것들이 많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좋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신경 쓰지 않을 만큼 대단하지 않은 게 아니고 대단해요. 대단하고 중요하고 좋은 것들을 다 놔두고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그 하늘로 마음을 보내드리면 하나님이 행복해지십니다. 하나님이 행복해지시면 나도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 하고 싶으면 같이 사는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한 채로 어떻게 행복해지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티끌 같은 나 때문에 왜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불행해지십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 때문에 불행해하시고 나 같은 것 때문에 행복해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

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나라는 나 때문에 행복하거나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나 같은 건 죽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에 행복하시고 나 때문에 불행하십니다. 이게 은총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나 때문에 시무룩해져서 국정에 지장이 있다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신경 쓰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 같은 것 때문에 불행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전에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고통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 날마다 내 마음을 써야 마땅한 일입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하고, 내가 좋아해서 사랑에 빠질 만한 사람이고, 그러나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좋아하고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원 없이 좋아하시고 행복하시게 해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생활에 대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주어지는 대로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이제까지 살아 온 모양이 꼴꼴난데 꼴골나게 살았던 그 방식을 답습하겠다는 것입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과감하게 한 번 그렇게 목이 뻣뻣함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생활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이 뻣뻣하고 서야 그래서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도 마음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향하고 있어서야 어찌 그것이 선민이고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날마다 이 세상 좋은 것들에 대해 죽고,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드려서, 에스더를 보고 기뻐하는 아하수에로 왕처럼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